



군포소식

Gunpo Monthly Magazine

2016

05

제346호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세대간 소통하는 방법, 독서다.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독자들을 통해
 책 읽기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들어보자.





2016 책나라군포

철쭉 축제

04. 29(금) ~ 05. 03(화)

철쭉동산, 시민체육광장, 산본로데오거리

행사문의 : 축제사무국 031-390-3560

Contents

2016 MAY VOL 346

- 04 '2016 책나라군포 철쭉 축제'를 보다
- 12 군포새소식
- 14 군포시의회
- 15 더불어 - 한소리에술단
- 16 꿈꾸는 군포 -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 19 독자마당
- 20 거리를 만나다 - 뽐 2002 '꿈꾸는 뽐뽐'
- 22 반갑습니다 - 100일 책 읽기 다독자를 만나다
- 24 문화갤러리 - 물테마 박물관 · 물누리 체험관
- 26 찾아라 내 일!
- 28 책나라군포
- 30 문화산책
- 32 건강쑥쑥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gunpocity

blog.naver.com/o2gunpo

twitter.com/gunpocity

발행일 2016년 5월 1일

발행인 군포시장

발행처 gunpo 군포시

홍보실

TEL 031-390-0663

FAX 031-390-0069

WEB www.gunpo.go.kr

정기구독 신청(무료)

〈군포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홍보실에 전화신청하세요.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 개최

백 만그루 철쭉이 선사하는
진분홍 사랑



철쭉만발 행복 만발
개막식·개막공연

04.29(금)



각양각색 매력 발산
철쭉 테마공연

04.30(토)



눈과 입과 귀가 즐거운
철쭉 체험행사

05.01(일)



자연과 예술이 모인
철쭉 러브콘서트

05.02(월)



백만그루 철쭉의 향연
폐막·폐막공연

05.03(화)



군포시 주최, 군포문화재단 주관의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가 4월 29일 시작된다. 군포시가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철쭉의 아름다움과 책의 인문학적 정신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자 축제 명칭을 '철쭉대축제'에서 '책나라군포 철쭉축제'로 변경했다. 철쭉의 아름다움과 책의 인문학적 스토리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축제의 신도심 편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군포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악, 퍼포먼스, 서커스 등 다양한 거리공연이 이뤄진다.

철쭉동산은 지난 1999년부터 식재한 철쭉류 16만 본이 장관을 이뤄 개화기에는 하루 1만여 명의 시민이 찾는 명소다. 이곳은 철쭉류 외에도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참나리, 별개미취 등 3만 여 본이 심어져 있어 사시사철 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도 좋다.

첫날 축제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매일 밤 철쭉 속에서 거리 공연, 마당극 '심청', 철쭉동산 상설공연 등이 열리며 향토음식과 먹거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된다. 봄이 오면 을

긋볼곳 도시 전체에서 피어난 백 만 그루의 철쭉이 꽃대밭이 되어 휴식과 사랑을 선물한다.

이번 축제는 철쭉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철쭉 설화인 '헌화가'를 테마로 한 퍼레이드, 철쭉화분과 보를 만들기, 철쭉본재 전시 등이 진행된다. 또한 신도심과 기존도심에 거리공연(비스킹)을 고루 배치해 축제 행사의 편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군포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시내 어디에서라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간대별 특성을 살린 테마 공연으로 오전에는 퍼포먼스 공연을 하고 오후에는 군포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저녁에는 재즈와 클래식, 밴드 공연이 펼쳐질 계획이다.

한편 철쭉 조기 개화에 맞춰 4월 23일과 24일 철쭉동산에서 '제5회 사람사랑 장애인 락 페스티벌'과 마당극 '심청'이 개최돼 시민들에게 축제현장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진분홍 꽃잎을
눈과 마음에
담아보세요

백만 그루의 철쭉이 선사하는 2016 책나라군포 철쭉축제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을 알린다. 퍼레이드 코스는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작해 대림프라자 앞 ▶ 군포 KT ▶ 군포시청 ▶ 2단지 ▶ 시민체육광장까지 총 1.8km에 이른다. 퍼레이드에는 마칭밴드와 미8군 군악대, 연합풍물단, 만장행렬, 축하사절단, 11개 동 주민자치센터, 북청 사자춤 공연단 등이 참여해 약 40분간 행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막공연은 시민체육광장에서 시작되며 축제 개막을 선언하고 마마무, 적우, 우연이, 이예린, K2 김성면, 엠팩트, 플래쉬 등 인기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어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불꽃쇼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작가와 시민들이 제작한 예술등을 설치한 '구름 물고기전'을 철쭉동산에서 만나볼 수 있다.

4월 29일 축제 일정



행사명	시작	소요시간	장소
퍼레이드	오후 6시 10분	90분	퍼레이드 코스
개막공연, 1부 인기가수 초청공연 (마마무, 적우, 우연이, 이예린, K2 김성면 등)	오후 7시	120분	시민체육광장
2부 불꽃쇼			



음악, 마임,
인문학이
함께 하는 축제

축제 이튿날인 4월 30일은 철쭉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체험, 찾아가는 미술관, 페이스페인팅, 다도 시연회, 군포의 책 보물찾기, 비누꽃 만들기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웃음만발 마블링팀의 버블쇼가 펼쳐지며 철쭉 북 콘

서트에서는 2016 군포의 책으로 선정된 <뽕떡>의 저자 배유안 작가를 초청해 알찬 시간을 보내게 된다. 더불어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25개 팀이 철쭉만발콘서트에 참여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축제 마지막 날까지 철쭉 캐릭터인 '철이와 쪽이' 캐릭터 상품 판매도 진행된다.

4월 30일 축제 일정



행사명	시작	소요시간	장소
먹거리장터	오전 10시	1일	철쭉공원
체험프로그램	오전 10시	1일	
퍼포먼스 공연(웃음만발 마블링)	오전 11시	60분	철쭉동산
군포장날 큰잔치	오후 1시	180분	군포역전시장
거리공연	오후 1시	300분	산본로데오거리, 군포역, 금정역, 당정근린공원
	오후 3시	120분	
철쭉만발콘서트(시민 참여공연)	오후 2시	120분	철쭉동산무대
철쭉 book 콘서트	오후 7시 30분	120분	철쭉동산



서커스, 학생 미술실기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

5월 1일은 1인 서커스를 선보이는 마린보이의 공연이 철쭉공원 일대에서 시작된다. 더불어 오후 3시부터 산본로데오거리 터트 앞(농협)에서 임지훈의 솔로 공연, 오후 4시 혼성 4인조 밴드인 라이노어쿠스틱 공연, 오후 5시부터 마임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시청 건너편 산본로데오

거리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혼성 2인조 밴드조의 공연과 7인조폴밴드 무드살롱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같은 날 금정역 6번출구 앞 공터에서는 타악그룹 수팀이 오후 3시부터 공연을 하며,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오디세이밸리댄스 등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5월 1일 축제일정



행사명	시작	소요시간	장소
먹거리장터	오전 10시	1일	철쭉공원
체험프로그램	오전 10시	1일	
퍼포먼스 공연(마린보이)	오전 11시	60분	철쭉동산
군포장날 큰잔치	오후 1시	180분	군포역전시장
거리공연	오후 1시	300분	산본로데오거리, 군포역, 금정역, 당정근린공원
	오후 3시	120분	
수리학생미술실기대회	오전 10시	240분	철쭉동산
철쭉가요제	오후 2시	120분	
군포예술무대	오후 7시 30분	120분	



시민이 만들어가는 즐거운 축제 한마당

축제 넷째날인 5월 2일은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과 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거리공연은 철쭉공원 일대에서 저글링 퍼포먼스와 산본로데오거리 티터 앞에서 남성 3인조 불타는버스의 공연 등이 개최된다. 또 시청 건너편 산본로데오거리 광장에서 혼성 2인조 이매진의 공연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중 시민공연팀의 공연은 철쭉동산 상설무대에

서 4월 30일과 5월 2~3일 등 총 3회 열릴 계획이다.

군포문화재단은 음악, 무용, 국악, 마임 등 공연이 가능한 군포시민 및 시민동호회, 지역 예술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팀 25팀을 선발했다. 한울림소리, 군포남성합창단, 모아밤주부락밴드, 아트기버어울림 합창단, 군포플루트앙상블 등이 공연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5월 2일 축제일정



행사명	시작	소요시간	장소
먹거리장터	오전 10시	1일	철쭉공원
체험프로그램	오전 10시	1일	
퍼포먼스 공연(인형극)	오전 11시	60분	철쭉동산
거리공연	오후 1시	300분	산본로데오거리, 당정근린공원
철쭉만발콘서트(시민 참여공연)	오후 2시	120분	
철쭉러브콘서트(김창완 밴드)	오후 7시 30분	120분	철쭉동산



문화가 있는
철쭉제,
추억을 선물합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3일은, 마술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민 동호회가 참여하는 철쭉만발콘서트도 열리며,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40인조 및 성악공연과 초청가수 알리의 무대로 폐막식이 꾸며진다.

이밖에도 축제기간 동안 산본로데오거리 일원에 철쭉 화분을 배치해 포토존을 마련하고, 군포 장날 큰잔치를 통해 옛 전통시장 모습과 주막, 군포장터의 사라진 풍물을 재현한다. 또한 5월 6일까지 '수리산의 꿈전' 전시회가 열려 지역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5월 3일 축제일정



행사명	시작	소요시간	장소
먹거리장터	오전 10시	1일	철쭉공원
체험프로그램	오전 10시	1일	
퍼포먼스 공연(마술)	오전 11시	60분	철쭉동산
거리공연	오후 1시	240분	산본로데오거리, 당정근린공원
철쭉만발콘서트 (시민 참여공연)	오후 2시	120분	
폐막공연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알리)	오후 7시 30분	120분	철쭉동산



철쭉동산 가는 방법



승용차 이용시

산본동(수리동) 1152-10
 산본동(광정동) 1145-9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 ▶
 군포문화예술회관 우회진 ▶
 안산방면 직진 ▶ 한국전력공사 지나
 도장중학교 건너편 ▶ 철쭉동산
 영동고속국도 군포IC ▶ 산본방향 ▶
 도장터널 ▶ 철쭉동산



지하철 이용시

1호선
 금정역 ▶ 4호선환승 ▶ 산본역 ▶
 마을버스 이용(1-2, 3-1번)
 4호선
 수리산역에서 도보로 5분



버스 이용시

서울, 시흥방면
 5530, 5623번
 안양방면
 31-7, 88, 15-2번
 사당, 강남방면
 917, 11-2, 11-5, 540,
 4425, 3030, 9503번



축제 교통 통제에 따른 노선버스 우회 운행 안내

통제구간	운수업체	노선번호	비고
퍼레이드 구간 통제 4.29(금) 17:50~19:00	군포운수	1, 6, 6-1, 9	마을버스
	시랑교통	3, 3-1	마을버스
	행복운수	2	마을버스
	경기고속	3500, 6501	직행좌석
	경원여객	31-7, 3101, 8407	시내버스, 직행좌석
	경일여객	8426	직행좌석
	태화상운	8467	직행좌석
	대원여객	542	시내버스
	삼영·보영운수	3-1, 15-2, 87, 3030	시내버스, 직행좌석
	우신버스	5530, 540	시내버스
철쭉동산 앞 도로 통제 4.30(토)~5.1(일) 10:00~19:00	경기공항	공항직행	직행좌석
	군포교통	5623	시내버스
	삼영·보영운수	917, 11-5	시내버스
	우신버스	541	좌석버스
	군포운수	9	마을버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개청 1년 행복지수 쑥쑥

개청 1주년을 맞은 군포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는 현장 중심 행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동 주민센터와 달리 국 단위의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지역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손길이 스며들어 업무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행정의 질이 제고돼 담당 지역 내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자평했다.

행정복지센터에 의하면 2015년 4월 1일 개청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복지 서비스 연계 건수는 380건으로, 이전 1년 동안의 사례 97건보다 3.92배 증가했다. 또 복지 관련 가정방문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2.55배(123건→314건)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펼쳐졌다. 이 외에 행정복지센터는 청결한 마을 만들기에 집중, 청소환경 민원 처리 건수를 연간 131건에서 485건으로 3.7배 늘리는 동시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도 6건에서 104건으로 무려 17.3배 증가시켜 관련 생활 불편을 대폭 줄이는 큰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공원시설물 교체 및 유지관리 건수는 102건에서 329건으로 1년 동안 3.2배 증가한 반면 관련 예산은 m당 1천426원에서 1천275원으로 10.5% 절감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 효율 향상을 달성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청해 군포1동과 2동, 대야동까지 담당 중인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동 사무인 민원·복지·민방위 기능 외에 시에서 이관된 업무까지 포함해 10개과 96개 단위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구청급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3만7천146세대(10만2천274명)가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을 찾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행정복지센터의 설명이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390-3610



한 눈에 보는 군포

생후 3개월 이상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군포시가 애견인들이 반려견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내 동물병원 14개소와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반려견과 생활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거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4월 27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시와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 가면 5천 원에(일반적으로 2만원 이상)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생후 3개월 이상 등록된 개가 우선 접종 대상으로, 반려견 소유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대야동의 농업지역은 수의사가 순회 접종을 시행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새소식)를 참조하면 되는데, 더 상세한 정보는 지역경제과 농업경영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경제과 390-0311, 0317

5월 12일, 부부 아카데미 5강 진행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방법, 건강관 관계 만들기 등의 지혜를 공유하는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다.

부부의 동행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2016년 부부 아카데미' 이야기다.

총 5강으로 구성된 부부 아카데미는 성교육 전문가 구성에 푸른 아우성 대표, 감성코칭 전문가 권희정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데 제1강은 지난 4월 6일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21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5강도 관심 있는 사람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부부가 만드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는 5월 12일 오후 7시부터 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권희정 감성코칭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392-1811-2

출생신고 때 서류 한 장으로 8가지 서비스 신청하세요

군포시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최대 8가지 축하·지원 서비스 신청을 한 번에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다. 그동안은 출생신고 이후 출산축하용품, 가정양육수당, 워드북스타트 선물을 포함해 다자녀(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영주차장·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경감 등 각종 신청을 각각의 용지에 작성해야만 했다.

하지만 시가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31일부터 전체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면서 통합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시민은 시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며,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을 덜게 되고,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신분증과 통장사본 외에도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해야 한다.

한편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 보건행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행정과 390-8915

4월 30일까지 시정발전 공모

군포시가 새롭게 선포한 도시 브랜드 '책나라군포'를 국내 외에 널리 알리고, 4대 역점시책을 발전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책나라군포'는 시가 민선 5기 때부터 추진한 '책 읽는 군포'의 확장판으로, 독서문화정책의 가치와 성과를 군포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동시에 독서문화 발전을 군포가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최우수 제안 응모자에게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하는 등 총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시상한다. 공모자격은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은 4월 3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인터넷(www.epeople.go.kr)이나 우편(기획감사실) 등을 이용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고,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기획감사실 390-0366

한 눈에 보는 군포

기후·환경 백일장 및 사생대회

행사 개요

일시 5월 21일 오전 10시

※ 기상 및 내부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

장소 산본2동 농안공원 일대

주최 군포시

주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간 5월 2일 ~ 5월 20일

신청 전화(390-0505-6) 또는

이메일(gpagenda@hanmail.net)

주요내용

기후·환경 백일장

대상 군포지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중학생

주제 지구야, 사랑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에너지 절약 등)

분야 시, 수필, 독후감 등 자유형식

분량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단, 시는 분량제한 없음)

기후·환경 사생대회

대상 군포지역 초등학교생(1~6학년)

주제 지구야, 사랑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에너지 절약 등)

종류 제한 없음

규격

저학년(1~3학년) 8절 화지

고학년(4~6학년) 4절 화지

결과발표 및 시상

결과발표 5월 30일 홈페이지

(www.greengunpo21.or.kr), 개별 공지

시상 6월 4일 에코투게더 지구사랑 + 행사 기념식 중

시상내역

구분		지구사랑 상	기후사랑 상	환경사랑 상		
시상내역		군포 시당상	경기도군포 의원교육 지원형 교육장상	군포시 의회 의장상	국회 의원상	군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장상
백일장	초등 고학년	1명	1명	1명	1명	2명
	중학생	1명	1명	1명	1명	2명
사생 대회	초등 저학년	1명	1명	1명	1명	2명
	초등 고학년	1명	1명	1명	1명	2명

군포시의회 체험학습 실시

군포시의회는 관내 초등학교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과 어린이 모의의회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6일 당정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 33명이 군포시의회 체험을 위해 방문 했다.

견학프로그램과 모의의회 교실을 체험했으며 의회 2층에 위치한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시의회 홍보 동영상 상영한 후 의장실에서 의사봉을

직접 두드리보는 등 시의회 체험 시간을 가졌다.

견학에 참여한 학생은 “수업시간에 배웠던 곳에 직접 와 보니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고, 지방의회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배울 수 있어 재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별 군포시의회 의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학습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는 군포시의회 홈페이지(www.gunpocouncil.or.kr)나 시의회 사무국 전화로 가능하다.

군포시의회 390-8713

Interview

[장경민 의원 인터뷰]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 활발히 할 것”

장경민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수상

지난 3월,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주민참여·소통 분야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경민 의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활발한 생활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행정,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및 주민소통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장경민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경민 의원은 항상 공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산본천 복개구간의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장경민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에 대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진의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스터 안전’이라는 별칭이 있다. 시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시 집행기관 전 부서의 공사장의 안전관리, 시민 생활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지적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

한편 장경민 의원은 2011년부터 오래 봉사를 하며 사랑의 우수 자원봉사자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봉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마련하고 뿌듯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새마을 조직을 통한 봉사,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 등 작은 것이라도 위로 받고 도움이 된다면 뛰어들었다. 그것이 봉사를 위한 스스로의 다짐이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시민과 소통 하고 있다.

장경민 의원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입법통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려고 한다. 나아가,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양대축으로 충분한 의사 및 정보 교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직자 및 공기관계자로 하여금 안전의 중요성을 끝까지 지적하여 시정 될 때까지 시민의 감시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을 담은 '하나'의 소리를 내다 한소리예술단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설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민요는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울조리듯 흔
жат말로 내뱉거나, 모순된 음악으로 마음을
감추며 우리 민족이 가진 '한(恨)'의 정서
를 담고 있다. 우리 소리의 명맥을 잇는 일
은 곧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잇는 일이다.

글 최미연 사진 군포문화재단



함께 불려요, 우리소리

'한소리예술단'은 한영숙 경기민요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이수자를 중심으로 약 6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영숙 명창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다니며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대종가집이라는 이유로 노래를 금기시하는 집안의 반대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지만 한영숙 명창은 다시 소리를 하며 경기민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소리예술단이 부르는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이며 서민적인 인정과 사랑 등을 주제로 한다. 장단은 굿거리장단·타령장단·세마치장단이 많이 쓰이며, 흥겹고 경쾌한 맛을 풍긴다. 이런 흥겨움 때문인지 예술단원들은 공연은 물론 국악치료와 악기, 소리를 가르쳐 주며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영숙 명창은 "몇 년 전, 봉사활동을 갔는데 실어증 환자분에게 '닐리리야' 노래로 국악치료를 했어요. 다녀오고 나서 전해 들었는데, 7년 동안 말을 못했던 분이 '닐리리야'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고 기뻐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국악치료는 아직 생소하지만 최근 창법에는 급격히 떨거나 꺾거나 흘러내리는 음이 별로 많이 쓰이지 않고 있어 명쾌하고 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하다.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군포생동감'(군포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함께 느껴요)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시민은 군포문화재단(031-390-3071~3)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 방방곡곡,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민요

은 벽과 장식장을 채운 상패와 상장들이 한소리예술단의 활약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한소리예술단은 양로원이나 복지관, 요양원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각지를 돌며 우리 민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5월 2일과 7일 공연을 앞두고 있다.

회원들은 10년 이상 활동하는 국악전공자와 전수자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함께 연습하고 있다. 한영숙 명창은 "국악을 꼭 전공하지 않아도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함께 할 수 있다"며 "공연에 위해 다양한 곡을 연습하고 안무와 소품으로 분위기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곡은 주로 경기민요와 한국무용과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한영숙 명창은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포아리랑을 작곡했다. 작시는 박근모 시인이 맡았고 이번 철쭉제에서 군포아리랑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영숙 명창은 "국악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악을 통해 살기 좋은 군포를 만들고 우리 소리를 통해서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소리예술단의 경기민요는 철쭉제 기간 중 5월 2일, 철쭉동산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내일의 모차르트가 여기에!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음악을 배운 적 없어도 작곡가가 될 수 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클래식을 작곡할 수 있다? 다소 허황되게 들릴지 몰라도 군포문화재단에서 진행 중인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다.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수업의 일환인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클래식을 체험하며 아이들의 잠재된 가능성과 창의성을 오선지 위에 하나를 채워가고 있다.

글 김은 사진 군포문화재단

클래식 작곡으로 창의성을 키우다

날이 갈수록 자극적이고 소비적인 음악이 아이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수많은 가요&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어린이들마저 최신 가요를 흥얼거리며 연예인을 선망의 대상이자 제1의 직업으로 꼽고 있다. 최신 유행 음악을 부르고 인기 있는 춤을 추는 것도 나름의 노력과 재능이다. 하지만 음악을 포함한 예술문화 자체는 '다양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다 많은 문화적 경험과 장르를 접해볼 필요가 있다. 군포문화재단의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은 뉴욕필하모닉의 '꼬마 작곡가(Very Young Composer)'를 군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서 도입한 것으로,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오케스트라 악기를 경험한 후 자신만의 작품을 작곡하게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로써 아이들의 잠재된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계발은 물론, 작곡곡을 만들고 함께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자신감도 키울 수 있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꼬마작곡가 프로그램>은 군포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이 힘을 합쳐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10~13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 4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열린 수업과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

꿈과 사랑이 있어 아름다운 하모니

〈포마작곡가 프로그램〉에는 삼박자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우선 군포문화재단은 타 기관과 비교하여 기자재 및 교보재가 잘 준비돼 있어 다양한 악기체험과 창의적인 작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는 곳이다. 게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3명의 교육강사들은 이미 2014년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어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을 그려낼 수 있도록 세밀하고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도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수업태도를 들 수 있다. 아동반(12명)과 가족반(18명)으로 구성된 〈포마작곡가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27일까지 4개 프로그램에 걸쳐 1개 프로그램당 총 15주차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4월말 현재 5주차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참여학생들은 때론 진지하게 때론 자유롭게 수업에 임하며 뜨거운 수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어려운 작곡용어가 나올 때면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쫓듯 세운 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하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호른 등 생소한 악기를 보며 낯설이 하던 처음과 달리 지금은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이 작곡한 음악이 연주될 날을 꿈꾸고 있다. 내일의 모차르트, 베토벤을 꿈꾸며 꿈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5월 28일에는 오픈수업을 앞두고 있다.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을 맞아 군포시민 누구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관련된 오픈형 프로그램을 접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하는 자리이다. 11월 27일에는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발표회가 잡혀 있어 그동안의 노력들이 모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태어날 예정이다. 그날 철쭉홀에 울려 퍼질 음악들은 다소 서글고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또래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하나둘 종이 위에 써내려간 클래식 선율은 그 어느 포마작곡가의 곡보다 아름다울 것이다. 이들이 완성해가는 음악은 8분 음표가 아닌 꿈과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하루빨리 들어볼 날을 기대해본다.

군포 랩 스텝 꿈의학교 참가 청소년 모집

대상 관내 중학생 2~3학년

내용 오리엔테이션, 목표정하기, 랩으로 만나는 청소년 문화 등

모집 20명(선착순)

신청일시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선착순

방문, 팩스 및 E-mail(gjycc21@hanail.net)

신청양식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jycc21.or.kr) 참조

문의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390-1483

군포 랩 스텝 꿈의학교 강사·멘토 모집

대상 음악활동(랩 부분 우대)중인 성인

내용 오리엔테이션, 목표정하기, 랩으로 만나는 청소년 문화 등

모집 주강사 2명, 멘토 4명(선착순)

신청일시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선착순

방문, 팩스 및 E-mail(gjycc21@hanail.net)

신청양식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gjycc21.or.kr) 참조

문의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390-1483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달마다체험거리 참가 모집

대상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강의실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선착순)

참가비 무료

문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390-1472

홈페이지(www.ddyouth.or.kr)

운영프로그램

- 5월 21일 프리저브드 플라워(15명)
- 6월 18일 켈트/부엉이 브로치(15명)
- 7월 16일 생화 꽃바구니(15명)
- 8월 20일 나만의 예코백 1(25명)
- 9월 10일 나만의 예코백 2(25명)
- 10월 15일 양말인형만들기(15명)
- 11월 19일 한지공예/손거울(15명)
- 12월 17일 독서대(10명)

다문화 음식축제

기간 5월 21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산본로데오거리 야외무대

참여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참여기관 수원출입국관리소,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등

행사 내용

- 기념식 축하 이벤트, 다문화음식 경연대회
- 공연한마당 세계전통공연, 거리음악회
- 체험한마당 다문화 음식, 놀이 체험
- 나눔한마당 세계 전통 차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문의 군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95-1811



2016 군포시 청소년 일본속 백제문화 탐방 참가 모집

요약개요

탐방기간 7월 22일~7월 25일(3박 4일)

탐방지역 일본 백제 문화권(오사카, 교토, 나라 지역일대)

인원 및 대상 28명(관내 중·고등학생)

소요비용 1인 1,180천원(자부담 590천원, 군포시 590천원 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군포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및 만성질환, 알레르기 등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군포시 주관 청소년 해외연수 참가 경력이 있는 학생은 제외

접수 및 추천

기간 4월 18일~4월 28일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gunpo.go.kr) (시민참여 ⇒ 인터넷접수)

선발방법

- 전자추첨에 의한 공개방식 전자 추첨시 공무원2, 참관 희망학생3명 이내

※ 참관 희망학생 선착순 3명 접수 390-0784 (탐방 신청자에 한함)

선발인원 33명(참가자 28명, 예비자 5명)

추첨일 4월 29일 오전 10시

선발자 발표 및 등록

- 발표 5월 2일 오후 4시(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 등록 5월 11일 오후 6시까지(군포시청 청소년교육체육과)

문의 청소년교육체육과 390-0784

어느 봄날 교정에서

강영규 | 광정동

둘째를 기다리며
바라본 초등학교 교정에서
벚꽃 꽃잎이 바람에 흐리며 내린다.

이제 봄이 온 건가 싶는데
벌써 꽃잎은 바람에 지고,
이른 봄이 마냥 좋지만 앓다는 걸
애써 알려주듯이 천천히 내린다.
마른 땅 위로.

봄이 오길 기다려 왔건만
봄은 미처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일찍 와선 이토록 어린 바람 끝에
벚꽃 잎을 실어 보내 버린다.

사람이 할 일이란
기껏해야 꽃잎이 지기 전에
서둘러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시간을 가지는 것뿐이겠지.

올해의 벚꽃은
그렇게 과거로 흘러가 버릴 것이고
우린 아마 담 주름이면
철쭉이 피길 기다리며
벚꽃을 잊어버릴 것이다.

언제나 삶이 그러하듯이.



철쭉의 도시

이형철 | 신본1동

책으로 피어난 도시여
청령으로 이어진 송고함이며
이제야 진정 함박웃음이 피었구나

철쭉은 시각(視覺)으로 말하고
책은 미각(味覺)으로 말한다고 했지
화려한 음악 속에 잉태한 미소는
애처로운 혼을 담아냈구나

바람결에 흩날리는 철쭉동산
진홍 물감이 온통 불타고 있어
도시를 철쭉으로 빛나게 하고있구나

철쭉의 여행도
책의 여행도
어찌 그 고귀함을 누가 잊으랴.





날개 없는 천사들이 만드는 행복한 빵 원2002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역사회 내의 경쟁적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직업경험을 통한 직업 태도를 길러 주고, 적합한 직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직업 능력 향상 훈련 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이끈다" 이 같은 명제를 실현에 옮기기 위해 '꿈꾸는 원빵'은 "빵을 팔기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글 최미연 사진 주효상

장애인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다

원장애인보호작업장 '꿈꾸는 원빵'이 제과제빵을 통해 장애인들이 소박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나래를 활짝 펴고 있다. 경기 군포시 군포로 494번지(당동빌딩 405호)에 위치한 원장애인보호작업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15명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제과제빵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학령기 이후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뜻을 모아 2011년 6월 보호작업장을 설립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건강한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원2002는 2007년도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다가



2014년 4월에 사단법인 원2002(대표 :조정옥)를 설립하였고 법인설립으로 인해 그동안 자부담으로 운영하던 원장에 인보호작업장이 2014년 11월부터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강영순 원장은 원보호작업장이 설립된 2011년부터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하며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단법인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강 원장은 “누군가가 작업장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일이었기에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태주었을 뿐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현재의 원장에 인보호작업장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관공서와 지역사회가 행사 때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해주었고, 2015년 4월에 군포시 정부지원어린이집연합회와 급·간식 협약을 맺으면서 매출증대에 기여를 했으며, 각종 행사에 판매·홍보 부스를 배정받아 판매하였던 것이 꿈꾸는 원빵을 지역사회에 알리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영순 원장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다른 직원들도 초창기부터 2014년 11월 운영비를 지원받기 전까지는 받았던 보수의 50%이상을 후원금으로 기부하여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갔다. 제과제빵을 가르치는 직업재활교사 정정미 선생님도 장애자녀를 두었고 이 곳 작업장에서 자녀와 함께 출퇴근을 하며 일하고 있다. 정정미 선생님은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걱정되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꿈꾸는 원빵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이뤄진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사랑과 정성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 순수한 빵

‘꿈꾸는 원빵’의 제품은 순수하다. 가능하다면 순수 국산 재료를 직접 농촌에 가서 구입해 제품을 만들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장애인들을 교육하며 빵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탄생된 제품이 ‘현미찰쌀오븐케이크’, ‘우리밀통밀 호두파이’ 등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화 상품을 비롯해 단팃빵, 머핀, 식빵, 롤케이크, 마들렌, 생일케이크 등을 주문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천연발효종으로 만든 간강빵을 만들기 위해 BREAD 책을 번역한 아티자베이커스의 모성태 대표에게 발효종을 만드는 방법 및 제품 전반에 관한 기술을 전수받고 직접 발효종을 만들어 첨가물 없는 천연 발효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강영순 원장은 “이번 5월에 대표님의 고향인 홍성 딸기농장에 딸기 따러 가요. 직접 농장에서 따 온 딸기로 딸기잼을 만들고, 포도철에는 송산에 사는 언니가 후원하는 포도로, 키위 수확시기에는 키위를 후원받아 잼을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조정옥 대표는 “힘든 상황에서도 원빵을 이끌고 올 수 있었던 데는 작업장 설립 때부터 계속 제과제빵에 필수적인 재료인 계란을 한 달에 두 번씩 35~6만씩 후원해주는 충남 홍성 신곡농장(대표 김국환)과 남편의 외조 덕분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빵을 운영해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빵을 매개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고교 특수학급 위탁 직업교육을 하는 등의 사업으로 작지만 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해오는 작업장 가족들과 많은 분들의 성원 힘입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감개무량해 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2002 459-7942



건강한 습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책 읽기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 1기 다독자를 만나다

한 권의 책은 세계에 대한 하나의 버전이다. 그 버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시하든지 답례로 자신만의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간접 경험을 하고, 그로써 이해와 지식을 쌓는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타인과 소통하고 행복한 책 읽기를 통해 마음을 건강하게 해보자.

글 최미연 사진 주효상

건강한 독서습관을 기른다

책나라군포가 책 읽기와 생활운동 실천을 같이 하는 '2016 1기 건강습관만들기 책과 건강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를 지난 1월 27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독서 토론을 함께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따르

면 하루 15페이지를 읽으면 100일 동안 5권 이상을 읽을 수 있고, 100일 동안 책을 읽으며 건강습관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0일 책 읽기와 100개 글쓰기, 100일 건강지킴이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작년에 진행했던 100일 책 읽기와 달리 '건강습관만들기'라는 미션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윤서윤 매니저, 송경득 씨, 오유경 씨, 지은희 씨, 이건호 씨(좌측부터)

을 더했고, 누적 도서 권수 대신 누적 페이지를 산출해 수 상자를 가린다. 100일간 책을 읽고 꾸준히 글을 쓴 완주자 3명을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한 다독자 순으로 선정해 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달 6일부터는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 2기가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책읽는 정책과 390-0902 / 군포시중앙도서관 390-8866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습관 만들기

현재 1만 페이지 이상 읽은 이진호씨와 9천~8천 페이지 이상 읽은 송경득씨, 오유경씨, 지은희씨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매니저 윤서운씨를 만나 100일간의 기록을 들어보았다.

오유경씨는 독서를 습관화하고, 독서를 통해 자신을 알기 위해 작년에 이어 다시 참여하게 됐다. 올해 처음 참여한 송경득씨와 이진호씨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됐다. 송경득씨는 남편과 함께 독서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진호씨는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목표를 갖고 시간 관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고 딸아이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며 시작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지은희씨는 지난해 1기에 참여했지만 100일 책 읽기 과정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책을 읽는 동안 재미도 있었지만, 순위권에 들고 싶은 욕심도 생겨서 더욱 분발했다"며 "이번이 두 번째 참여하는 것이니만큼 책을 읽는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나만의 목표로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편독하는 습관 바로잡고 마음을 살찌우는 힘

그동안 네 명의 참여자들은 소설이나, 역사 분야의 도서 등 자신이 즐겨 읽는 분야의 도서만 읽는 편독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편독하는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송경득씨는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읽지 않았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읽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와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섬진강을 처음 알게 됐고, 남쪽 지역을 알게 됐다. 지리산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곳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지 책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오유경씨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

는 책을 읽으며 비움과 채움에 대해 생각했다. "항상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난 후 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게 됐고 비우는 과정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진호씨는 대학 시절부터 역사책을 주로 읽었다. '도서관을 털러 간다'는 그의 표현대로, 그는 역사와 교육학, 에세이 등을 주로 읽으며 문학 분야는 잘 보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그에게 깊은 울림을 준 책은 오유경씨처럼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책이었다. 욕심을 비우고 상대를 배려하고 나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여유가 생긴다는 건호씨의 설명이다. 그는 "독서는 사색을 깊게 해주고 간접경험과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느낌을 갖게 해주면서 소통하는 창구가 된다"고 독서의 장점을 강조했다.

마음이 젊어지고 소통하는 독서

네 명의 다독자들은 독서가 마음을 젊게 해주고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청년기 자녀들은 책을 추천하기도 하면서 세대 간 소통, 가족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윤서운 매니저는 "독서를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독서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책을 통해 정서가 전달되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책을 읽으며 생각이 많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많아진다"며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생산적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 1기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시작될 2기 참가자들을 위해 오유경씨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각자 읽은 책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독서 습관이 생겼다. 600페이지가 넘는 책은 읽지 않았는데,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책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타인과 소통하는 길. 100일 책 읽기 프로젝트로 독서하는 습관과 소통의 힘을 길렀다고 하는 다독자들에게서 책나라군포를 이끌어가는 희망을 느꼈다.

물이랑 우리랑
다 같이 행복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물 학습장

군포시 수도사업소는 '물이랑 우리랑 다같이 행복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돗물 생산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을 주제로 한 물테마 박물관과 물누리 체험관을 운영하며 어린이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글 최미연 사진 군포시수도사업소



군포 물테마 박물관

물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물테마 박물관은 지난 2007년 개소해 생활 속에서 어우러지는 물 체험과 물에 대한 상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1층은 4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돼 있고 물레방아 쉼터 등 휴식공간도 마련돼 있다. 또한 물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 퀴즈를 통해서 어린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즐기면서 배우는 3D 입체영상 체험관도 조성돼 있다.

테마 1 '물 사랑방'은 물의 순환과 상식, 물 이용의 역사, 수돗물 생산 과정을 각종 모형과 영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테마 2 '물 체험마당'은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자격루, 측우기, 무자위, 용두레 우물, 물레방아 등을 설치해 물에 관한 옛날 생활풍습을 재현한 야외 공간이다. 또한 테마 3 '물 학습동산'은 나선형 물두레와 펌프 하우스, 물저울, 물레방아 등 물체험 교육 교구를 활용해 과



물테마 박물관 견학 중인 아이들이 우물을 관람하고 있다

학적 원리를 깨닫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공간이다. 테마 4 '잔디마당'에서는 조형분수대와 놀이기구, 물레방아, 벤치 등을 갖추고 있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한택 공업계장은 "개관당시 하루에도 수 백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다양한 물의 활용과 역사를 이해하고 갔다"며 "앞으로도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물테마 박물관을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포시 수리산길 151(산본동) 390-3294

군포 물누리 체험관

물누리 체험관은 생활오수로 오염된 죽암천과 반월호수의 자연생태를 위생적인 하수처리시설로 복원시키기 위해 조성된 대야 물말끔터 내에 있다. 주민 친화적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물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다.

체험관은 총 2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1층에는 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공간과 동화 속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



물학습동산에 있는 물레방아 체험 시설



물에 대한 상식을 알 수 있는 물 사랑방 전시관

는 물이야기관, 동물을 캐릭터화 해 감정을 다양한 형태의 물로 소개하는 춤추는 물관, 물과 환경을 주제로 그림, 시화, 사진이 전시된 에코 갤러리가 마련돼 있다. 2층에는 물과 문명의 탄생, 물의 이용과 오염된 물 등을 보여주는 전시관이 있고, 하수처리의 역사와 방법, 군포의 물과 숲 등의 환경 이야기, 환경 교실 등의 전시관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의 학습장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군포시 호수로 170-85(둔대동) 390-8688

물테마 박물관과 물누리 체험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물테마 박물관과 물누리 체험관의 모든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와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반려동물은 출입이 불가하다. 이 밖의 문의 사항이나 단체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홈페이지(water.gunpo.go.kr)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물누리 체험관

외국인 주민 전용 취업 지원 상담실 개설

다문화카페 레인보우에서 '일자리 사랑방' 운영



군포시가 외국인 주민 전용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한다. 4월부터 군포일자리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와 여성가족과의 취업설계사를 다문화카페 레인보우(당정로 28번길 22) 내의 '일자리 사랑방'으로 매주 1회 파견,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레인보우 카페는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가 작년 4월 문을 연 곳으로, 최근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해 미니도서관과 교육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보강돼 지역 내 외국인 주민들에게 소통의 장이자 '문화 사랑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레인보우 카페에 '일자리 사랑방'까지 마련, 지역 내 1만1천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까지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다문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도 예방한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시는 외국인 주민 전용 '일자리 사랑방'이 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 욕구가 큰 결혼이민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취업 성공률도 향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 전체 인구의 약 4%가 외국인 주민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가 많다"며 "엄연한 군포시민인 이들을 위해 단순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개발·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일자리 사랑방' 운영도 일자리 알선에 그치지 않고, 취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사후관리를 진행해 실질적 복지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다문화팀을 비롯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효율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월에는 행정자치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해 개최된 '다문화정책대상' 행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여성가족과 390-0805

코트라와 협력,

지역 중소기업 해외 판로 발굴

군포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동지를 자처하고 나섰다. 해외 영업 인력이나 기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KOTRA(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을 체결,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지역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 선정된 업체들에 '2016년 코트라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 발굴과 시장정보 수집, 수출상담, 해외 현지 세일즈 출장 및 전시 참가 협조 등 다양한 제품 판로 개

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이용비용은 200~350만원 선인데, 시는 선정 업체당 최대 200만원(참가경비의 70% 이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김호택 지역경제과장은 "업무협력에 의해 코트라는 올해 12월까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종료 후 4개월간 사후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며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정보는 군포시기업포털(biz.gunpo.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지역경제과 390-0284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들 대상으로 구직 의욕 강화와 취업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1과 2로 나뉘어 시행되며 취업성공패키지 1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64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새터민이나 신흥희망지원자, 결혼이민자와 위기청소년(만 15세~24세)도 참여 가능하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로 개인별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8개월까지 직업훈련과 청년취업아카데미, 창업지원연계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무료 직업훈련(300만원 한도)이 이뤄지며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이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알선과 동행면접이 이뤄지고 취업에 성공할시 취업성공수당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2는 소득여건 없이 만 18세~34세까지 고졸이하 비진학청년과 대졸이상 미취업자, 유학생 등이 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거쳐 직업훈련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4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031-463-3856~7



군포일자리센터 5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390-0613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가온누리 주단지보호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44, 서일빌딩 4층 (당동)	장애인 주단지보호시설	생활복지사 1명 (야간전담근무)	야간 19:30 ~ 08:30	연봉 2,000만원	031-398-0123
(주)아원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76, 10 (당정동)	기계조립	유공압 기계 및 기계설비 1명	평일 08:30~18:00	연봉 2,600만원	031-451-0628
주식회사 씨연오산업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63 (당정동)	폐식용유 도소매	1톤 포터차량 운전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80만원	031-424-1107
주식회사 영풍산업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60번길 21 (당정동)	자동차용 볼트 도금	아연, 아연니켈 도금 생산원 1명	2교대 08:30~17:30	시급 6,030원	031-452-1830
미소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79, 미성프라자 9층 미소요양원 (산본동)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명	2교대 09:00~21:00	월급 140만원	031-391-3377
(주)진시스템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77번 안길 16, (당정동)	기계부품임가공	머시닝센터 MCT 1명	평일 08:30~18:00 (전입, 특근있음)	월급 250만원	031-457-3530
(주)온교육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356-51, 301호 (산본동)	교육서비스	영업기획·관리 및 지원 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60만원	070-4070-0405
(주)RGBCOLOR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5-12 (금정동)	광고용 사진출력 및 실사출력	총무, 경리사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250 만원	02-500-3710
삼광반도체(주)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39-3, 신라테크노빌801호 (당동)	개발 및 제조생산	전기 및 전자 분야 단순종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1,800만원	031-456-1444
케이드라마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1동 601~603, 605호 (당정동)	행류 제조업	식품 분야 단순종원 2명	평일 07:30 ~ 18:30	시급 6,030원	031-456-0520

집에서 잡자는 헌책에 새생명을 주세요!

헌책 벼룩시장, 매주 토요일 운영

군포시는 가정에서 잡자는 책을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는 헌책 벼룩시장을 10월(7~8일, 우천시 휴장)까지 매주 토요일 산본로테오거리 야외무대(산본이마트 앞)에서 개최한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헌책을 교환·판매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그림책이나 만화책, 일반 도서, 전집 등 도서 관련 물품은 모두 판매·교환할 수 있다. 산본도서관은 매일 신청자를 모집하나 당일 현장 참여도 환영한다.

다만 '책나라군포 철쭉축제'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철쭉동산에서 진

행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 전체를 책으로 채우고 시민의 마음까지 책의 가치로 채우는 책나라군포를 조성하고자 진행된다. 천막 설치 후 벼룩시장 형태로 시작하게 되며 추후에 상설 헌책 장터 및 판매 부스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문화행사 접수)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상세 문의는 산본도서관으로 하면 된다.

산본도서관 390-8841

지혜와 감성의 융합, 밥이 되는 인문학

군포시가 진행하는 밥이 되는 인문학 강연이 4월 28일과 5월 26일, 6월 23일 오후 2시에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4월 밥이 되는 인문학 강사진으로 작가이자 '의심의 철학자'로도 불리는 이진우 포항공대 석좌교수를, 5월에는 이성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주제의 소설을 쓰는 소설가 겸 번역가 최윤 작가를 초빙했다.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산해경>을 번역해 대중에게 소개

한 동양신화 전문가 정재서 교수가 군포를 찾으며, '책나라군포'의 더 특별한 인연이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군포시의 밥이 되는 인문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시가 주최하는 각종 인문학 강연 일정 등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참조하거나 책읽는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책읽는정책과 390-0903

총상금 1,400만원... 시·소설·수필 6월 20일까지 접수

책나라군포 신인 문학상 공모

군포시는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서 문학창작을 통해 문인 양성에 기여하고, 책나라군포로서 문학계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신인 문학상을 공모한다.

참여대상은 미등단 또는 등단 3년 이내의 신예 작가로서 공모 부문별 1인 1작품에 한하여 국내외 타 공모전, 문학지 등에 출품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공모 부문은 시(5편 이상), 소설(200자 원고지 240매 내외 1편), 수필(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1편)이며 응모 희망자는 6월 2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응모가 마감되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 8월 12일에 시(www.gunpo.go.kr)와 군포시도서관(www.gunpolib.

or.kr)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동시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윤주 군포시장장은 "책과 책의 가치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하고, 독서문화의 순기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려 문학상을 공모하는 것"이라며 "공모전을 계기로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 사람, 창작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상금이 1천400만원인 이번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책읽는정책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책읽는정책과 390-0902

이달의 도서관 행사

어린이날 기념 특별공연 <개똥이와 꽃님이>

일시 5월 5일 오후 3시

대상 30가족(100여명)

장소 3층 소극장

극단명 이야기놀이터

공연내용 환경을 소재로 한 창작 전래극

접수방법 인터넷 선착순 접수(도서관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

※ 기탁관에 참석인원을 적어주세요

접수기간 4월 29일부터 마감시까지

문의 어린이도서관 390-8681

어린이날 기념 케이크 만들기

일시 5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3층 소극장

신청대상 군포시 가족 10팀(2인 1가족)

재료비 15,000원 / 개인준비물 앞치마

신청기간 도서관홈페이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4월 28일부터 마감시까지)

내용 캐릭터 생크림 케이크(미니언즈) 만들기

문의 어린이도서관 390-8681

그림책 캐릭터 만들기

일시 5월 5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2시

장소 어린이도서관 야외광장

신청대상 각 회당 유아6세~초등학생 15명(4회 운영, 총 60명)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4월 28일부터 마감시까지)

내용 클레이를 사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캐릭터 만들기

문의 어린이도서관 390-8681

매직스토리텔링(매직북 만들기)

일시 5월 5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2시

장소 어린이도서관 야외광장

신청대상 각 회당 유아6세~초등학생 15명(4회 운영, 총 60명)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4월 28일부터 마감시까지)

내용 <꼬꼬와 꼬봉이> 동화구연, 나만의 미술 이야기 책 꾸미기

문의 어린이도서관 390-8681

군포시 도서관의 5월 추천 도서



01

<아동>
이상한
엄마

일하는 엄마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책이다. 아이가 아파도 직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엄마 대신 선녀 할머니가 아이를 보살펴준다.



02

<청소년>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 김영란이 청소년들에게 정의로운 법, 참여하는 법에 대해 들려주는 법 교양서이다. 법이 태초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면 뒤 법이 발전하게 되는 역사를 살펴본다.



03

<성인>
관찰의
인문학

함께 걷는다고 해서 항상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바라보는 세상도 모두 다르고 시선이 머무는 곳도 다르다. 알렉산드라 호로비츠 박사는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다.

군포 G시네마 5월 상영프로그램

일시 5월 2일~5월 30일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대상 일반시민(어린이 및 청소년)

내용 <군포 G시네마>가 엄선한 경기도 다양성영화

입장료 1,000원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071~3

뮤지컬 어린이난타

일시 5월 7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5월 8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장소 수리홀 / 75분

입장료 VIP석 50,000원 / R석 4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500~2

15년 두드림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백세시대 인생 재설계를 위한 특강

일시 5월 13일 ~ 6월 24일(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여성회관 3층 생활교실

대상 25명 (군포시민 누구나) 무료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

문의 여성회관 390-3080

강좌 세부내용

- 1회 100세 시대! 즐거운 인생 재설계하기
- 2회 인생 2모작! 꼭 하고 싶은 일 찾기
- 3회 인생 2모작을 위한 성격 공합 찾기
- 4회 인생 2모작을 위한 관계성 회복하기 방법
- 5회 100세 시대! 자녀 진로 공합 찾기
- 6회 인생 2모작을 위한 성공적 재취업 공합 찾기
- 7회 100세 시대! 전략적 경력 설계하기

리얼스틸

일시 5월 12일 오후 2시

장소 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

공연장르 액션, 드라마, SF

관람연령 12세 이상 관람가 / 무료

문의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 5월 수요일 영화산책 ☆



5월 4일
빅 피쉬(2004)

주연 아완 맥그리거,
앨버트 피니

등급 12세이상 관람



5월 11일
국제시장(2014)

주연 황정민, 김윤진,
오달수

등급 12세이상 관람



5월 18일
장수상회(2015)

주연 박근혜, 윤여정,
조진웅, 한지민

등급 12세이상 관람가



5월 25일
자전거 도둑(1952)

주연 람베르토 마키오라니,
엔조 스타이올라

등급 12세이상 관람가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 중앙도서관 지하1층 소극장 / ☎ 390-8884 / 선착순 80명, 무료관람

제163회 상상극장 정기공연

극단 엘의 폴란드 전래동화 복합극 '코트피코'

기간 5월 17일~28일까지

(화~목)오전 11시, 오후 4시

(금)오전 11시, 오후 4시, 오후 7시 30분

(토)오전 11시, 오후 2시

교육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출연팀 극단 엘

입장료 일반8,000원 / 회원6,000원

문의 031-390-3054~3055

2016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일정 안내

5월 4일 오후 7시 철쭉동산 수리동 주민자치위원회

5월 7일 오후 5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 산본 로데오거리상인회

5월 13일 오후 6시 흥진초등학교 운동장 오금동 주민센터

5월 27일 오후 6시 제일공원 금정동 주민자치위원회

6월 30일 오후 7시 금정역 광장 산본1동 주민자치위원회

9월 3일 오후 6시 묘향 어린이공원 궁내동 주민자치위원회

9월 9일 오후 6시 능안공원 산본2동 주민자치위원회

9월 24일 오후 6시 30분 당정근린공원 군포2동 주민자치위원회

2016 군포아트마켓 개최

일시 5월 21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군포 '문화의 거리'

내용 시민이 만든 생활문화예술 창작품을 만나는 문화장터

신청기간 5월 4일까지

모집대상 생활문화예술 순수창작품을 만들고 팔고자 하는 시민

참가규모 100팀

참가조건 순수 핸드메이드 출품에 한하며 참가비는 없음

(※군포사랑장학회 기부금 자율 모금)

모집분야 공예, 생활소품, 초상화 등 페인팅, 도시농산물,

수제식품, 환경용품, 거리공연자, 생활문화체험 등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071~3

콘서트 오페라 <춘향전>

일시 5월 22일 오후 5시

장소 수리홀

관람시간 120분

관람연령 24개월이상

입장료 전석 20,000원

출연 지휘 장윤성, 소프라노 강경이, 정지원 등

문의 군포문화재단 390-3500~2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

펜촉, 종결모, 빨래집게, 손전등, 바나나, 몽당연필, 열쇠

수수께끼

책나라군포는 총상금 1천400만원의 '신인 000'을 공모 중이다.

☞ 28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 표기 후 사진 촬영해 5월 21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페이스북 공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당첨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
 동의 안함 ☐

가족이 행복한 군포



봄철질병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유의

일교차가 심한 봄철 심혈관 질환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가?

일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기온이 떨어지는 초겨울이나 겨울에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에 환자가 더 많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생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겨울철(12~2월)보다 봄철(3월~5월)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건강에 더 각별히 힘써야 한다.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는 심장혈관기능을 조절하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져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기 쉽다. 이것이 반복되면 심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혈전이 달라붙어 혈액 흐름을 막아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

봄철 심장건강 관리 포인트

1. 봄에 날씨가 풀리면 갑자기 옷차림이 가벼워져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지나치게 수축될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등 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있거나 고령인 사람은 장시간 외출할 경우 번거롭더라도 가벼운 외투나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해 체온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 운동할 때도 땀이 약간 날 정도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한다.

2.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수분섭취가 필요하다. 심혈관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은 심한 가슴 통증, 가슴 두근거림, 피부 변색, 피로감, 호흡곤란, 졸도, 부종 등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위험군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5월 고혈압 건강교실

기간 5월 4일~5월 25일
시간 오전 10시
대상 지역주민 약 30명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소교육실
(운동은 대교육실)
신청 선착순 전화접수 390-8951
내용

- 5월 4일 고혈압 영양 관리
- 5월 11일 고혈압 질환 관리
- 5월 18일 고혈압 운동 관리
- 5월 25일 고혈압 합병증 관리

건강한 임신·출산 교실

일시 5월 5일~5월 26일 오후 2시
장소 보건소 3층(보건교육실)
대상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20명
신청 전화 신청, 산본보건지소
390-8933, 390-8966

내용

- 5월 12일 임신부 순산요가
복근력 강화, 대퇴부 강화
- 5월 19일 임신부 순산요가
상체 근육강화, 엉덩이 근육강화,
골반근육이완 강화
- 5월 26일 임신부 순산요가
등근육강화, 진통완화 동작, 허리
강화, 분만축진 동작

5월 당뇨병 건강교실

기간 5월 6일 ~ 5월 27일
시간 오전 10시
대상 지역주민 약 30명
장소 산본보건지소 3층 대교육실
신청 선착순 전화접수 390-8951
내용

- 5월 6일 당뇨병 질환관리
- 5월 13일 당뇨병 영양관리
- 5월 20일 당뇨병 운동 관리
- 5월 27일 당뇨병 합병증 관리

※시정에 따라 운영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